

'농민의 마음'에서
'소비자의 마음'까지

시골꾸러미



www.farmsfood.com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공주/세종지역 농가들이 한데 모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포집푸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왜 이용해야 하나요?



어디서 온 음식인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먹거리의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1. 농민과 소비자의 거리가 멀어져,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2. 유통과정이 복잡하여 농민이 제대로 된 몫을 받지 못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면?

1.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를 알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2. 농민이 농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먹거리 이동에 따른 CO₂ 배출 등 환경적인 문제와 안전성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지구를 살립니다.

'시골꾸러미'는 지역의 가까운 먹거리를
농가와 소비자에게 선물합니다.

함께하는 농가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하는 지역 농가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골꾸러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목가 들었나오?"
유성현, 두부, 김나뭇
재첩농산물
지역 농산물 가공물
농 물이요가지

매주 · 격주 정기적으로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공주/세종지역은 작업복을 그 옻는 택배배송)

가입 방법

홈페이지 <http://www.farmsfood.com> 접속
또는 포털에서 **시골꾸러미** 검색
Tel: 070-4400-9841
E-mail: fourmis@gmail.com
회사주소 : 충남 공주시 금성동 174-4



꾸러미를 받고 달라진 점

회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시골꾸러미의 좋은 점

1. 이번 주에는 어떤 농산물이 올까?
▶ 기다리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안락하네요. 꾸러미별 배달일 때마다 벌써 기다리게됩니다...
크리스마스엔 산타클로스가지 기다리는 기분입니다. ㅎㅎ
- 유진 회원님
2. 마트에서는 보기 힘든 재첩 음식과 지역
▶ 우수가공업체의 건강한 먹거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온 허균을 이번 꾸러미에서 먹었는데... 구수한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제가 끓인 허균이 이보다 맛을 좋은 허균
를 찾았습니다...정말 맛은 허균을 감사합니다...매일 허균 전도 부쳐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수제비 해 먹어놓은 허균이 허균도 새로운
맛이었습니...감사합니다...^^
- 수영 회원님
3. 점성가득하고 신선한 먹거리로 밥상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배고기 들었나오? 이리저리 들리와 몇마 먹네.
저번엔 꾸러미 열면서 재첩을 생미와 달걀이 있어 기쁘나
반갑고 감사하네요.
술취한 봄을 먹고 싶고...다들 봄 알았나봄 바벌 바벌에
바벌바벌에 꾸러미 덕분에 봄을 바벌 바벌 반박을 받음 합니다.
- 오서영 회원님



농가에서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공생공소 대표 박연근입니다.
지역농가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제철의 가까운 곳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도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아들, 딸과 같이 생각하며 정성스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농민을 생각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회원분들과 함께 마추잖아 시골의 정겨움을 나누는 날들을
상상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대표 박연근

★시골꾸러미에는 아래와 같이 농가에서 보낸 메시지와
요리법이 함께 보내집니다.

